

경쟁 없어도...올해 '칸' 국제영화제엔 한국영화 현재·미래 다 있다

76회 칸영화제 한국영화 장·단편 총 7편 경쟁 부문 진출작 없지만 풍성한 라인업 김지운·홍상수 등 한국 대표 감독 영화 김창훈·유재선 등 신인 감독 영화 초청 송강호·송중기·제니 등 슈퍼스타 출동

경쟁 부문엔 가지 못했다. 하지만 이 정도면 꽤나 풍성하다. 올해 칸국제영화제엔 한국영화 5편이 초대받았다. 단편영화 2편도 함께 간다. 한국을 대표하는 감독들의 새 영화가 첫 선을 보이고, 신인 감독들의 약진도 눈여겨 볼 만하다. 한국영화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배우들도 대거 참석한다. 게다가 독보적인 위치에 있는 K-팝 슈퍼스타도 칸 레드카펫을 밟는다.

◇장편 5편과 단편 2편

제76회 칸영화제 경쟁 부문엔 한국영화 5편이 초대받았다. 단편영화 2편도 함께 간다. 한국을 대표하는 감독들의 새 영화가 첫 선을 보이고, 신인 감독들의 약진도 눈여겨 볼 만하다. 한국영화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배우들도 대거 참석한다. 게다가 독보적인 위치에 있는 K-팝 슈퍼스타도 칸 레드카펫을 밟는다.

먼저 눈에 띄는 건 한국영화를 대표하는 감독인 김지운·홍상수 감독의 새 작품이다. 김 감독의 '거미집'은 비경쟁(Out of competition) 부문에 초청받았다. 이 부문에 함께 이름을 올린 영화는 마틴 스코세이지 감독의 '킬러스 오브 더 플라워 문'(Killers of the Flower Moon), 개막작인 마이클 감독의 '잔 뒤 바리', 폐막작인 픽사 애니메이션 '엘

리멘탈' 등이다. '거미집'은 김 감독이 2018년 '인랑' 이후 5년만에 내놓은 신작이다. 1970년대를 배경으로 결박을 만들겠다는 강박에 사로잡힌 한 영화감독이 정부의 검열과 출연 배우들의 비협조적인 태도 속에서 영화를 완성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야기를 그린 블랙코미디물이다. 배우 송강호가 주인공 '김 감독'을 맡았고, 임수정·오정세·전여빈 등이 출연했다. 김 감독과 송강호가 함께 호흡을 맞춘 영화는 이번이 5번째이고, 두 사람이 함께 만든 영화가 칸에 가는 건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이후 15년만이다. 또 김 감독이 연출한 영화가 칸영화제에서 선보이는 건 이번이 3번째다. 앞서 '달콤한 인생'(2004)과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2008)이 비경쟁 부문에 초청된 적 있다.

◇김지운과 홍상수

홍 감독의 '우리의 하루'는 감독 주간(Directors' Fortnight) 부문에서 상영 된다. 홍 감독의 30번째 영화인 이 작품에는 배우 김민희·기주봉·김민희·송신미·박미소·하성국·김승윤 등이 출연했다. 홍 감독 영화답게 명확한 스토리가 있지는 않다. 풀리양 레지 감독 주간 집행위원장은 이 영화를 "삶의 다양한 즐거움을 다루면서 삶에 대한 교훈을

이야기하는 두 인물 간 편집으로 명료함을 보여준다"며 "김민희가 어떻게 진정한 배우가 되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다. 홍상수 감독은 가장 위대한 영화감독 중 한 사람"이라고 했다.

홍 감독 영화가 칸에 초청받은 건 '강원도의 힘'(1998)이 주목할 만한 시선 부문에 진출한 것으로 시작으로 이번이 12번째다.

김태곤 감독의 '탈출: PROJECT SILENCE'는 미드나이트 스크리닝(Midnight screenings)에 로버트 로드리게스 감독의 '헵노틱' 등과 함께 이름을 올렸다. 김 감독은 '뚝'(2009) '1999, 면회'(2013) '굿바이 싱글'(2016) 등을 연출했다. '탈출'은 그가 7년만에 내놓는 스릴러물. 집은 안개 속에서 다리 위에 고립된 이들의 사투를 그리며, 이선균·주지훈·김희원·문성근·예수정·김태우·박희본 등이 출연했다.

◇한국영화의 미래

올해 칸영화제에 초청된 장편영화 5편 중 2편이 신인 감독 영화라는 것도 눈여겨 봐야 하는 대목이다. 지난해 박찬욱 감독이 '헤어질 결심'으로 칸에서 감독상을 받은 뒤 국내 영화계에서는 "박 감독이 상을 받은 건 축하할 일이지만, 봉준호·박찬욱 이후 칸 등 해외에서 인정받을 정도의 실력을 가진 젊은 감독이 아직 나오지 않는 건 문제"라는 말이 나왔다. 그러나 이 말이 무색하게 딱 1년만에 두 명의 신인 감독이 칸 레드카펫을 밟는다.

김창훈 감독의 '화란'은 주목할 만한 시선(Un Certain Regard) 부문에 이름을 올렸다. 배우 송중기와 홍사민이 주연을 맡은 이 작품은 지옥 같은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은 소년 '연규'가 폭력 조직의 중간 보스 '치건'을 만나 위태로운 세계에 발을 들이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누아르물이다. 신인 배



우 홍사민이 연규를, 배우 송중기가 치건을 연기했다. 유재선 감독의 '잠'은 비평가 주간(International Critics' Week)에 초청됐다. '잠'은 잠에 들면 다른 사람처럼 변해 끔찍한 행동을 하는 남편과 이 공포의 비밀을 파헤치는 아내의 이야기를 그린다. 배우 정유미와 이선균이 부부로 호흡을 맞췄다.

김 감독과 유 감독은 신인감독상에 해당하는 황금카메라상을 놓고 경쟁하게 됐다. 황금카메라상은 공식 경쟁 부문과 함께 주목할 만한 시선, 비평가 주간, 감독 주간에 초청된 모든 신인 감독 영화 중 1편을 선정한다.

영화 학교 학생들이 만든 작품을 선보이는 시네파운데이션(Cinéfondation)엔 황혜인 감독의 단편 '홀'과 서정미 감독의 단편 '이씨 가문의 형제들'이 초청됐다.

◇한국 슈퍼스타 출몰동

한국영화가 7편이나 진출한만큼 한국을

대표하는 스타들이 대거 칸 레드카펫을 밟는다.

우선 '거미집'의 송강호·임수정·오정세·전여빈·정수정 등이 칸으로 간다. 송강호는 지난해 '브로커'로 칸에서 남우주연상을 받기도 했다. '우리의 하루'에 나온 김민희 역시 연인인 홍 감독과 함께할 거로 예상된다. 배우 이선균은 '탈출'과 '잠' 출연작 2편이 칸에 가게 되면서 레드카펫을 두 번 밟게 됐다. '잠'을 함께한 배우 정유미, '탈출'에 함께 나온 주지훈 등도 칸을 경험할 거로 보인다. 또 '화란'의 송중기 역시 칸에 가게 된다.

이와 함께 전 세계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K-팝 그룹 블랙핑크의 제니도 칸에서 볼 수 있다. 올해 칸은 비경쟁 부문 초청작 중 시리즈를 한 편 골랐는데, 그 작품이 바로 제니가 주연을 맡은 '아이돌'(The Idol)이다. 연출은 HBO 드라마 '유포리아', 영화 '멜캠과 마리'로 능력을 인정받은 샘 레빈슨 감독이 했다.



피프티 피프티, 틱톡에서 돌풍 일으킨 비결은?

케이팝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가 글로벌 음악 차트에서 연일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중소형 케이팝 기획사의 걸그룹이 전 세계에 이름을 알리며 '기적'을 써 내려갈 수 있었던 계기는 바로 틱톡과 같은 숏폼 영상 플랫폼이었다.

지난해 11월 데뷔한 피프티 피프티의 '큐피드'는 틱톡을 통해 전 세계 이용자들 사이에서 친숙한 노래가 됐다.

한 이용자가 '큐피드' 영문 버전의 프리코러스(후렴구 직전에 나오는 짧은 소절)를 따서 속도를 빠르게 높인 스피드 업(Sped up) 버전으로 만든 뒤, "2023년 최고의 프리코러스"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린 것이 시작점이었다.

해당 버전의 음악은 각종 챌린지를 비롯해 언박싱, 베이킹 영상 등 여러 게시물의 배경음악으로 사용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됐다. 특히 틱톡 특유의 문화인 '챌린지'는 큐피드가 전 세계로 확산하는 계기가 됐다. 스피드 업 버전 큐피드 음악에 맞춰 손으로 하트 모양을 그리는 뒤 화살을 날리는 안무를 포인트로 한 챌린지가 유행을 타고 있다.

큐피드는 느리고 쉬운 멜로디로 누구나 편하게 들을 수 있는 이지 리스닝 팝 장르다. 피프티 피프티는 다른 케이팝 아티스트들처럼 강한 개성과 콘셉트로 존재감을 드러내는 전략을 택하지 않고 친숙하고 편안한 멜로디의 노래로 승부했다. 큐피드는 어떤 영상에서나 배경음악으로 사용하기 좋다는 점에서 많은

틱톡 이용자들의 선택을 받았다. 그리고 한 번 콘텐츠가 유행을 타면 무서운 속도로 확산하는 틱톡 생태계의 특성은 피프티 피프티를 단숨에 스타로 만들었다.

틱톡에 이어 유튜브에서도 피프티 피프티 채널은 큰 관심을 얻고 있다.

튜브가이드의 5월 둘째 주 랭킹에 따르면 피프티피프티는 주간 조회수 3375만 회를 기록하며 케이팝 랭킹 8위를 차지했다. 주간 구독자 수 또한 10만 명이 증가하며 랭킹 3위를 기록하는 등 식지 않는 인기를 증명했다.

피프티 피프티는 이렇게 영상 플랫폼에서 이름을 알린 이후 '글로벌 스타'로 발돋움하고 있다. 전 세계 주요 음악 차트에서 연일 새로운 기록을 써 내려가는 모습이다.

큐피드는 지난 9일(현지 시각) 공개된 5월 2주 차 빌보드 핫 100 차트에서 19위를 차지했다.

이는 41위를 기록했던 전주보다 무려 22위나 오른 수치다. 4월 초 K팝 역사상 최단기간인 데뷔 4개월 만에 처음으로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인 핫 100 차트에 진입한 피프티피프티는 이로써 7주 연속 차트 진입에 성공했다. 순위는 100위→94위→85위→60위→50위→41위→19위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 뿐 아니라 큐피드는 영국 오피셜 싱글차트 톱 100에서 8위를 기록하며 7주 연속 차트에 진입했다. 이는 K팝 걸그룹 역사상 최고 성적이다.

화사, 대학축제 19금 퍼포먼스 '갑론을박'

마마무의 히트곡 '데칼코마니' '힙' 등 메들리 공연

그들 '마마무' 멤버 겸 솔로 가수 화사가 대학 축제에서 선보인 퍼포먼스에 대한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16일 대중음악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화사는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 인문사회과학캠퍼스에서 축제에서 마마무의 히트곡 '데칼코마니' '힙' 등을 메들리로 들려줬다.

문제가 된 곡은 래퍼 로꼬와 듀엣한 '주지마'다. 온라인에 올라온 영상 등을 살펴보면 속옷이 비치는 시스루 검정 톱을 입고 무대에 오른 화사는 화끈한 무대로 큰 호응을 얻었다.

그런데 무대 중간 핫팬츠 차림의 화사가 다

리를 양쪽으로 벌리고 앉은 자세에서 허로 손을 찡는 흉내를 내더니, 특정 부위를 손으로 쓸어 올렸다. 이 장면이 편집돼 소셜 미디어에서 퍼지면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중이다.

평소 과감한 퍼포먼스를 선보여온 화사다웠고 성인들을 위한 축제인데 문제가 될 거 없다는 반응과 함께 대학 축제는 볼수록 다수가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만큼 과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날 화사의 축제 참여는 오는 25일 첫 방송하는 tvN '댄스가수 유랑단' 촬영의 하나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에서 해당 퍼포먼스는 담



기치 않을 가능성이 크다. 화사는 과거 시상식 무대 등에서 노출이 많은 옷을 입은 채 화끈한 퍼포먼스를 종종 선보여왔다.

'청량' 프로미스나인, 데뷔 5년만 첫 정규...그녀들 세상 '잠금해제'

다음달 5일 발매...8인조 재편 후 첫 음반



'신형 서머퀵'으로 통하는 그룹 '프로미스나인'(fromis_9)이 데뷔 5년 만에 첫 정규 앨범을 낸다.

16일 소속사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에 따르

면, 프로미스나인은 오는 6월5일 정규 1집 '언락 마이 월드(Unlock My World)'를 발매한다. 앨범 발매는 작년 6월 미니 5집 '프롬 아워 메모리 박스(from our Memento Box)' 이후 약 1

년 만이다.

2017년 케이팝 음악채널 엠넷의 걸그룹 육성프로젝트 '아이돌학교'를 통해 결성돼 이듬해 데뷔한 프로미스나인의 초창기 세계관은 '환상 속 소녀의 집'에 주로 머물렀다.

하지만 재작년부터 청량함이 강화되면서 상승세에 가속도가 붙었고 팬덤 '플로버'도 늘었다. 청춘 이미지 '위 고'부터 하이틴의 감성이 담긴 '톡톡'으로 분위기를 전환했고 지난해 'DM', '스테이 디스 웨이(Stay This Way)'를 통해 여정함을 선사했다.

아울러 이번 앨범은 지난해 7월 말 멤버 정규리가 탈퇴한 이후 8인조로 처음 내는 앨범이기도 하다.

플레디스는 "데뷔 5년 만에 내놓는 첫 정규 앨범인 만큼 멤버들은 음악적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오랜 기간 공들여 이번 활동을 준비했다. 멤버들의 진정성 있는 메시지가 앨범에 가득 담겼다"고 소개했다.

프로미스나인은 이날 오후 9시 트랙리스트를 시작으로 18일부터 25일까지 오픈셜 포토, 29일 콘셉트 트레일러, 31일 하이라이트 메들리를 선보인다. 이어 6월 3일엔 뮤직비디오 티저를 예고한다.